

# 한국어 피동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실현\*

## The Semantic Structure and Argument Realization of Korean Passive Verbs

김 윤 신\*\*      이 정 민\*\*\*  
 (Yoon-shin Kim) (Chungmin Lee)  
 강 범 모\*\*\*\*      남 승 호\*\*\*\*\*  
 (Beom-mo Kang) (Seungho Nam)

**요 약** 한국어에서 피동동사는 대응하는 능동동사로부터 접미사를 첨가하여 파생되거나 대응하는 능동동사의 어간에 어미와 조동사로 이루어진 형태를 붙여 형성된다. 따라서 피동동사는 그 능동동사와 공유하는 어휘정보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피동동사의 논항실현 양상을 격교체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에 근거하여 그 의미구조를 설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세부분야** 소프트웨어학(언어학/언어처리)

**주제어** 생성어휘부 이론, 사건구조, 논항구조, 격구조, 특질구조, 미명세, 능동, 피동, 격교체

**Abstract** Korean passive verbs are derived from their corresponding active verbs by suffixation or by adding endings and auxiliaries to their stems. Therefore, we assume passive verbs share some lexical informations with their active counterparts. This paper, extending the Generative Lexicon theory of Pustejovsky (1995), aims to characterize the argument realization patterns of Korean passive verbs focusing on the case alternation and to propose their lexical semantic structures which account for the syntactic behavior.

**Keywords** The Generative Lexicon, Event Structure, Argument Structure, Case Structure, Qualia, Underspecification, Active, Passive, Case Alternation

### 1. 서론

피동(passive)은 어떤 사건을 그 사건의 시작시점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시점에서 그 사건을 기술하는 태(voice)이다. 그러므로 피동에 대한 연구는 사건의 시작시점에서 기술하는 능동(active)과 관련지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의 피동동사는 타동사인 능동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미사에 의해 파생되거나, 연결어미와 조동사로 구성된 ‘-어지다’ 구성을 붙여서 형성된다. 즉, 한국어의 피동동사는 관련된 능동동사와 형태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 두 부류의 동사들이 의미구조상 긴밀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능동동사의 논항실현과 피동동사의 논항실현은 서로 상호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문법이론의 측면에서 규칙에 의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일관된 설명이 쉽지 않았다. 그것은 피동동사가 그 관련된 능동동사와의 연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자동사로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어휘간의 관련성을 긴밀하게 보여주고 통합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The Generative Lexicon)과 이를 한국어에 적합하게 확대 발전시킨 이정민, 강범모,

\* 이 연구는 과학기술처의 소프트웨어 학과 사업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과정 수료, yoonshin@snu.ac.kr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교수, cleee@snu.ac.kr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부교수, bmkang@kucenx.korea.ac.kr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조교수, nam@snu.ac.kr

남승호(1998)의 관점을 따라서 피동동사의 의미구조를 설정할 것이다. 먼저 피동동사와 능동동사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 능동문의 격교체가 피동문에서도 유지된다는 사실 등을 통해서 피동동사와 능동동사의 논항구조 상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 2. 능동동사와 피동동사의 대응관계

일반적으로 능동문과 대응되는 피동문의 피동동사는 주어 논항으로 능동문의 목적어 논항을 취한다. 그리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사격논항으로 실현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1) (가) 드디어 경찰이 그 도둑을 잡았다.  
 (나) 드디어 그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2) (가) 철수가 그 집을 지었다.  
 (나) 그 집이 (철수에 의해) 지어졌다.

능동문에서 필수적이었던 주어논항이 피동문에서는 수의적인 성분으로 바뀐다. 이는 영어의 수동태에서 행동주(agent)를 나타내는 by 명사구가 생략가능한 것과 일치한다. 즉 피동동사는 능동동사보다 필수논항의 수가 적어도 하나는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능동문의 목적어와 피동문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능동문과 피동문이 적절한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 (3) (가) 비밀경찰이 늘 그를 쫓고 있다.  
 (나) 그는 늘 비밀경찰에게 쫓기고 있다.  
 (4) (가) \*죄의식이 항상 그를 쫓는다.  
 (나) 그는 항상 죄의식에 쫓긴다.  
 (5) (가) 어머니께서 벽에 가족사진을 걸었다.  
 (나) 가족사진이 어머니에 의해 벽에 걸렸다.  
 (6) (가) \*병이 철수를 걸었다  
 (나) \*철수가 병에 의해서 걸렸다.  
 (다) 철수가 병에 걸렸다.  
 (라) 철수가 병이 걸렸다.

(3)과 (4)에서는 동일한 '쫓다'와 '쫓기다'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문법성과 의미를 보여준다. '비밀경찰'은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죄의식'은 행위를 할 수 없는, 즉 동작성이 결여된 심리상태를 나타낸 명사이다. 그러나 (3나)의 '쫓기다'와 (4나)의 '쫓기다'가 전혀 다른 동음이의어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다의어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5나)와 (6나)의 '걸리다'의 경우도 (3), (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의어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능동동사와 피동동사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능동동사에 두개의 피동동사가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접사에 의한 피동동사와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7) (가) 영희는 창문을 열었다.  
 (나) 창문이 (?영희에 의해/에게) 열렸다.  
 (다) 창문이 (영희에 의해/에게) 열어졌다.  
 (8) (가) 영희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  
 (나) (?\*영희에 의해) 마음의 문이 열렸다.  
 (다) \*영희에 의해 마음의 문이 열어졌다.

(7나)와 (7다)에서 '열리다'는 단지 (7가)의 '열다'의 피동동사이다. (7나)에서는 행동주가 생략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면, (7다)에서는 생략되지 않아도 자연성에 차이가 없다. (8나)와 (8다)의 '열리다'와 '열어지다'는 그렇지 않다. 보통 피동문에서는 행동주는 생략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나타나서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지는 않는다. (8나)와 (8다)의 경우에는 행동주가 나타나면 비문법적인 경우가 된다.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열다'라는 것이 굳어진 표현(frozen expression)으로 숙어적인 의미(idiomatic sense)를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Lee, Chungmin(1993)은 이와 같은 숙어적 의미를 갖는 굳어진 술어표현의 논항구조는 원래의 논항구조보다 논항의 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며, 또한 행동주 논항이 주어인 경우 대상(theme)논항이나 경험주(experiencer)논항으로 바뀐다고 주장한다. 즉 주어의 의미역할이 의미역할의 계층구조(hierarchy)에서 보다 낮은 층위의 의미역할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8가)의 '마음의 문을 열다'에서도 '마음의 문'은 대상논항으로, 또 '영희'를 주어인 행동주 논항으로 각각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 따라서 (8가)의 경우에 '마음의 문을 열다'의 주어 '영희'는 행동주성(agency)이 약화되어 행동주라기 보다는 경험주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Lee, Chungmin(1993)은 이와 같이 굳어진 술어표현의 논항구조에서 논항의 수와 의미역할이 변화되는 경우에 그 굳어진 술어표현은 피동화(passivization)와 상의 실현(aspectual realization)에서 제약을 보인다. 표면상 목적어 논항을 갖는 경우라 할지라도 (8나)와 (8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동의 형태가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마음의 문을 열

다는 하나의 자동사구와 같이 쓰이는 것이다.

### 3. 피동동사의 논항실현과 의미구조

#### 3.1.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은 동사의 기본의미를 기술하고 그 동사가 취하는 명사논항의 특성에 따라 그 동사의 의미를 확장하여 기술한다. 이러한 기재를 통하여 하나의 동사가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 다의어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성어휘부에서는 동사의 의미구조는 사건구조(Event Structure),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 특질구조(Qualia)로 구성된다. 사건구조에서는 그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의 상적인(aspectual) 특성을 기술하는 하위구조이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두개 이상의 하위사건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사건은 과정(process)과 상태(state), 그리고 전이(transition)로 나누어질 수 있다. 만약 동사가 복합사건을 의미할 경우 사건구조는 두개의 하위사건과 그 사건들 사이의 선후관계(restriction), 그리고 그 하위사건들 사이의 현저성(prominence) 차이를 나타내는 중점(Head)으로 이루어진다.

논항구조는 동사의 통사적 논항의 수와 그 논항의 자질을 표시한다. 논항구조에 나타나는 논항으로는 필수적인 논항과 당연논항(default argument), 그리고 그림자 논항(shadow argument)과 부가어(adjunct)로 나눌 수 있다. 필수논항은 논리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논항이고, 당연논항은 논리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통사적으로는 수의적인 논항을 말한다. 그림자 논항은 술어의 하위개념인 논항으로 논리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수의적인 논항이며 반드시 특정수식표현을 동반해야 한다. 부가어는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말한다.

(9) (가) John built the house out of bricks.  
(당연논항)

(나) Mary buttered her toast with an expensive butter. (그림자논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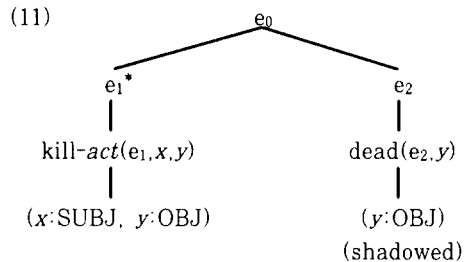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에 나타난 하위사건들과 논항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가 바로 특질구조이다. 특질구조는 형상역(形狀役, Formal), 작인역(作人役, Agentive), 구성역(構成役, Constitutive), 기능역(機能役, Telic)으로 구성된다. 형상역은 동사의

결과적인 상태와 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작인역은 그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의 기원과 발생에 관계된 것으로 주로 사건구조의 하위사건 중에서 과정(process)과 관련된다. 구성역은 주어진 대상과 그 대상의 구성성분 또는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며, 기능역은 대상의 목적과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의미구조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0) kill

EVENTSTR =  $E_1 = e_1$ : process  
 $E_2 = e_2$ : state  
 RESTR<sup>1)</sup> =  $\langle \infty$   
 HEAD = e1  
 ARGSTR = ARG<sub>1</sub> = x: ind  
 ARG<sub>2</sub> = y: animated\_ind  
 QUALIA = cause\_lcp  
 FORMAL = dead(e<sub>2</sub>.x)  
 AGENTIVE = kill\_act(e<sub>1</sub>.x.y)

그런데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11)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구조의 중점을 통해서 어휘항목의 의미구조를 표면의 통사구조와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즉 사건구조에서 중점이 놓이는 사건과 관계된 특질구조에 나타나는 논항만이 표면구조에서 실현된다. 중점이 놓이지 않는 사건과 관계된 특질구조에 나타나는 논항들로 이루어진 표면구조는 가려지게(shadowed) 되므로 실현되지 않는다.



#### 3.2. 피동의 의미구조

2장에서 살펴본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가장 일반적인 피동동사의 의미구조, 즉 능동문과 피동문이 서로

1) 선후관계에 대한 제약은 계속 전개될 이 논문의 술어미구조에서는 제외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건의 순서는 사건구조의 인덱스와 같기 때문에 잉여적이다.

대응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Lee, Chungmin, Seungho Nam and Beom-mo Kang(1998)은 능동동사와 피동동사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구조상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피동동사의 작인역(AGENTIVITY)은 능동동사의 입장에서 그 값이 정해진다. 작인역에서 논항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술어는 능동동사를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능동동사와 피동동사의 의미상의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전체사건의 중점(HEAD)이 능동동사의 경우에는 첫번째 하위사건(e1: process)에 중점이 있는 반면<sup>2)</sup>, 피동동사의 경우에는 두번째 하위사건(e2: state)에 중점이 떨어진다. 셋째, 능동과 피동의 짝은 두개의 논항을 공유하는데, 피동동사는 능동동사의 첫번째 논항(ARG<sub>1</sub>)을 당연논항으로 취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잡다'와 '잡히다'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12) '잡다'(능동동사)
  - 사건구조 = E<sub>1</sub> = e<sub>1</sub>: 과정
  - E<sub>2</sub> = e<sub>2</sub>: 상태
  - 중점 = e<sub>1</sub>
  - 논항구조 = 논항<sub>1</sub> = x: 행동주(Agent)
  - 논항<sub>2</sub> = y: 대상(Theme)
  - 격구조 = 격틀<sub>1</sub> = x-가 y-를
  - 특질구조 = 상태변화\_lcp
  - 형상역 = 잡혀\_있다(e<sub>2</sub>.y)
  - 작인역 = 잡는\_행위(e<sub>1</sub>.x.y)
- (13) '잡히다'(피동동사)
  - 사건구조 = E<sub>1</sub> = e<sub>1</sub>: 과정
  - E<sub>2</sub> = e<sub>2</sub>: 상태
  - 중점 = e<sub>2</sub>
  - 논항구조 = 논항<sub>1</sub> = y: 대상(Theme)
  - 당연논항<sub>2</sub> = x: 행동주(Agent)
  - 격구조 = 격틀<sub>1</sub> = y-가 (x-에\_의해)
  - 특질구조 = 상태변화\_lcp
  - 형상역 = 잡혀\_있다(e<sub>2</sub>.y)
  - 작인역 = 잡는\_행위(e<sub>1</sub>.x.y)

(12)와 (13)에 제시된 '잡다'와 '잡히다'의 의미구조는

2)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능동동사는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에 해당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완성동사는 과정과 상태의 두가지 하위사건으로 구성된 복합사건으로 선행하는 하위사건(과정)에 중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중점을 갖지 않는 동사인 경우에는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중점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3.3.에서 제시된다.

특질구조가 동일하다. 이 두 능동과 피동의 짝은 사건구조에서 중점의 위치가 다르고 논항구조에서 행동주인 논항이 논항과 당연논항으로 그 논항성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피동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후행사건인 상태가 두드러지는 달성동사(achievement verb)의 특성을 보이며 주어논항이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행동주가 아닌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논항이라는 점에서 비대격(unaccusative) 동사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중점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논항이 실현되는 표면구조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대상논항이 주어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피동동사가 사건을 결과시점에서 기술하는 동사라는 증거인 것이다. Croft, W. (1994)는 복합사건구조에서 어떤 한 행위는 주어로부터 시작하여 목적어에서 끝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능동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시작인 능동동사의 행동주 주어는 사건의 시작시점이며 대상인 목적어는 사건의 결과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동동사가 그러한 대상논항을 주어로 한다는 것은 피동동사가 기술하는 사건은 능동동사의 사건의 결과시점을 그 시작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2)와 (13)에는 Pustejovsky(1995)의 의미구조에는 없는 하위구조가 있다. 격구조(Case Structure)가 바로 그것이다. Lee, Chungmin, Seungho Nam and Beom-mo Kang(1998)에서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동일한 논항들을 격표지를 달리 실현함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격실현에 대한 별도의 장치인 격구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 격교체를 보이는 동사와 그 피동의 짝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울러 능동동사에서 중점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 3.3. 격교체(case alternation)와 피동동사의 의미구조

다음은 한국어에서 대표적인 처소교체동사들의 예이다.

- (14) (가) 철수가 사과를 바구니에 담았다.
- (나) \*철수가 사과로 바구니를 담았다.
- (다) \*사과가 바구니를 담았다/담고 있다.
- (라)(?)바구니가 사과를 담았다/담고 있다.
- (15) (가) 철수가 사과를 바구니에 채웠다.
- (나) 철수가 사과로 바구니를 채웠다.

- (다)(?)사과가 바구니를 채웠다/채우고 있다.
- (라) \*바구니가 사과를 채웠다/채우고 있다.

‘담다’와 ‘채우다’의 격교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6) (가) 유형1: x-가 y-를 z-에
- (나) 유형2: x-가 z-를 y-로
- (다) 유형3: y-가 z-를
- (라) 유형4: z-가 y-를

‘담다’의 경우에는 유형1(‘x-가 y-를 z-에’)과 유형4(‘z-가 y-를’)만이 교체체를 보이며, ‘채우다’는 유형1(‘x-가 y-를 z-에’), 유형2(‘x-가 z-를 y-로’), 그리고 유형3(‘y-가 z-를’) 등 3유형이 서로 교체한다. 더욱이 ‘채우다’가 보이는 ‘x-가 y-를 z-에’, ‘x-가 z-를 y-로’와 같은 격교체 현상은 동일한 논항구조를 갖고 있으나 표면의 격실현의 형태가 다른 예이다. 영어의 경우에는 논항구조가 동일하면 격실현의 양상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격실현의 양상이 달라지면 그 문장이 함축하는 바가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14가)와 (15가)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 우세한 반면, (14다)와 (15다)는 과정의 해석보다는 결과상태에 대한 해석이 우세하다. 그것은 (14가)와 (15가)의 경우에는 ‘담다’나 ‘채우다’의 사건구조에서 그 중점이 선행하는 하위사건인 e1(과정)에 주어지고 (14다)와 (15다)의 경우에는 후행하는 하위사건 e2(결과상태)에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건구조에서 중점이 어느 하위사건에도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4라)와 (15라)는 문법성에서 차이가 난다. Lee, Chungmin, Beom-mo Kang, Seung-ho Nam and Yoon-shin Kim (1999)은 ‘담다’는 ‘무엇인가를 포함하거나(contain), 그 속에 무엇인가를 갖는 상태(have in)’를 그 결과상태로 보장하는 반면, ‘채우다’의 결과상태는 ‘무엇인가가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상태(exist or be in/at/on)’라고 제시한다. 이때, ‘채우다’의 경우에는 접촉이 중심개념이 된다. 따라서 ‘담다’의 형상역(FORMAL)에는 착점논항이 대상논항을 포함하는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 ‘채우다’의 형상역(FORMAL)에는 대상논항이 착점논항에 존재하는 상태를 표시하게 된다. 따라서 (14라)는 ‘담다’의 형상역에 부합하는 표면구조이므로 비교적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만, (15라)는 ‘채우다’의 형상역에 맞지

않는 표면구조이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명된다.

또한 용기(container)로서의 바구니는 어떤 사물 그 속에 넣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용기의 개념을 갖는 명사논항이 주어로 올 경우에는 (14라)와 같은 표면구조의 문장은 문법적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담다’와 ‘채우다’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sup>3)</sup>.

(17) ‘담다’

- 사건구조 = E<sub>1</sub> = e<sub>1</sub>: 과정
- E<sub>2</sub> = e<sub>2</sub>: 상태
- 중점 =
- 논항구조 = 논항<sub>1</sub> = x: 사람(행동주)
- 논항<sub>2</sub> = y: 사물(대상)
- 논항<sub>3</sub> = z: 장소(착점)
- 격구조 = 격틀<sub>1</sub> = x-가 y-를 z-에
- 격틀<sub>2</sub> = z-가 y-를
- 특질구조 = 상태변화\_lcp
- 형상역 = 담겨\_있다(e<sub>2</sub>.z.y)
- 작인역 = 담는\_행위(e<sub>1</sub>.x.y.z)

(18) ‘채우다’

- 사건구조 = E<sub>1</sub> = e<sub>1</sub>: 과정
- E<sub>2</sub> = e<sub>2</sub>: 상태
- 중점 =
- 논항구조 = 논항<sub>1</sub> = x: 사람(행동주)
- 논항<sub>2</sub> = y: 사물(대상)
- 논항<sub>3</sub> = z: 장소(착점)
- 격구조 = 격틀<sub>1</sub> = x-가 y-를 z-에
- 격틀<sub>2</sub> = x-가 y-로 z-를
- 격틀<sub>3</sub> = y-가 z-를
- 특질구조 = 상태변화\_lcp
- 형상역 = 채워져\_있다(e<sub>2</sub>.y.z)
- 작인역 = 채우는\_행위(e<sub>1</sub>.x.y.z)

‘채우다’의 경우 격틀<sub>2</sub>에 해당하는 격교체의 유형이 실현될 경우, 즉 ‘철수가 사과로 바구니를 채웠다’와 같은 문장으로 실현될 경우에는 바구니가 사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함축하므로 특질구조의 형상역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sup>4)</sup>. 따라서 이러한

3) 다음 (17)과 (18)의 의미구조에서는 중점을 명세하지 않았다. 이러한 표기에 대해서는 이 section의 후반부에 설명하기로 한다.

유형으로 격이 실현될 경우에는 선행사건과 후생사건에 모두 중점을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관찰된 이러한 격교체의 유형이 피동동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9) (가) 사과가 (철수에 의해) 바구니에 담겼다.  
 (나) \*바구니가 (철수에 의해) 사과로 담겼다.  
 (다) \*바구니가 (사과에 의해) 담겼다.  
 (20) (가) 사과가 (철수에 의해) 바구니에 채워졌다.  
 (나) 바구니가 (철수에 의해) 사과로 채워졌다.  
 (다) 바구니가 (사과에 의해/사과로) 채워졌다.  
 (라) \*사과가 (바구니에 의해) 채워졌다.

'담다'는 대상화(thematization)된 착점(goal), 즉 대격표지를 붙인 착점논항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19), (20)의 어떤 착점논항도 피동문에서 주어라 될 수 없다. 이러한 예를 통해 대상화된 착점은 피동문의 주어라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담다'와 달리, '채우다'는 대상화된 착점논항을 갖는다. 따라서, 수동문에서 대상화된 논항은 주어라 나타날 수 있다.

피동문에서 대상논항이나 대상화된 논항은 아무런 장애 없이 주어라 될 수 있다. 그래서 피동동사는 비대격동사이다. 뿐만 아니라, 피동문은 능동문과 관련되어 있고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에서 어떤 동작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논항이나 대상화된 논항이다. 결국 격교체는 대상화를 반영하고 따라서 피동문에서 격교체는 보존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피동동사는 자동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채우다'와 같은 유형의 동사들은 그 관련된 자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예를 들어 '채우다'는 피동동사 '채워지다'와 관련이 있는 동사

에 자동사 '차다'와 관련이 있다. '채우다'는 '차다'라는 자동사에 사동형태소인 '-우-'를 붙여 파생된 사동동사이다. 앞의 (15)와 다음의 (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동동사 '채워지다'와 자동사 '차다'는 동일한 논항과 표면구조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격교체를 보인다.

- (21) (가) 사과가 바구니에 찼다.  
 (나) 바구니가 사과로 찼다.  
 (다) 바구니가 찼다.  
 (라) \*사과가 찼다.

그러나, 두 동사들 사이에는 상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의 (22)와 (23)에서와 같이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은 '채워지다'에는 붙을 수 있지만 기동동사(inchoative verb)인 '차다'에는 붙을 수가 없다. 이것은 '채워지다'는 완료상(telic)이거나 미완료상(atelic)인 반면, '차다'는 단지 완료상일 뿐이다. 그것은 기동동사는 완료결과적인 해석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사동에서 파생된 피동동사는 (22나)에서와 같이 동작성이 보다 강한 '과정+상태'의 해석, 즉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2) (가) 사과가 (철수에 의해) 바구니에 채워지고 있다.  
 (나) 바구니가 (철수에 의해) 사과로 채워지고 있다.  
 (23) (가) \*사과가 바구니에 차고 있다.  
 (나) \*바구니가 사과로 차고 있다.

피동동사인 '채워지다'는 과정지향적(process-oriented)일 수 있으므로 미완료적인 특징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 (24)는 반복의 의미일 수도 있고 과정이 계속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과거형인 경우에는 반복의 의미가 강하다.

- (24) (가) 사과가 바구니에 계속 채워지고 있다/채워졌다.  
 (나) 바구니가 사과로 계속 채워지고 있다/채워졌다.  
 (다) 바구니가 계속 채워지고 있다/채워졌다.

'채우다'는 의미구조에서 중점을 갖는 사건이 명세

4) 이러한 측면에서 '채우다'동사를 영어의 'fill'과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롭다. Levin, B. (1993)은 'fill'이 취하는 직접목적어는 전체적인 해석(holistic interpretation)을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가득 찼다'는 것을 결과상태로 보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동의 대상이 되는 논항이 주어라 나타나고 착점이 직접논항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 (a) Mary filled the bottle with water.  
 (b) \*Mary filled water into the bottle.  
 (c) Water filled the bottle.

한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의 '채우다'는 영어의 'load'와 더 유사한 격실현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채우다'는 의미상 'fill'과 유사하고 동사적으로는 'load'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d) Mary loaded the hay onto the truck.  
 (e) Mary loaded the truck with the hay.  
 (f) \*The truck loaded the hay.

되지 않고 다음의 (25가)와 같이 격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사건  $e_2$ , 즉 상태를 의미하는 후행사건이 중점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 격틀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동사 '차다'의 논항구조는 관련된 피동동사 '채우다'의 논항구조와 같다.

- (25) (가) 사과가 바구니를 채웠다.
- (나) 사과가 바구니에 채워졌다.
- (다) 사과가 바구니에 찼다.

앞에서 살펴본 현상을 근거로 '채우다'와 그 피동동사인 '채워지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동사 '차다'의 의미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잡다'의 경우와 달리, '채우다'는 중점을 어떠한 하위사건에도 부여할 수 없다. 또한 '채워지다'와 같은 동사는 그 상적인 특징이 완료상일 수도 있고 미완료상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역시 중점이 어떠한 하위 사건에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잡다'와 같이 중점이 과정을 나타내는 사건에 부여된 동사는 피동동사에서는 중점이 결과사건으로 옮겨가는 반면, 능동동사에서 중점이 없는 '채우다'와 같은 경우에는 옮겨갈 중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동동사의 경우에도 역시 중점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피동동사 '담기다'와 '채워지다'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 (26) '담기다'
- 사건구조 =  $E_1 = e_1$ : 과정  
 $E_2 = e_2$ : 상태  
중점 =
- 논항구조 = 논항<sub>1</sub> =  $y$ : 사물(대상)  
논항<sub>2</sub> =  $z$ : 장소(착점)  
당연논항<sub>3</sub> =  $x$ : 사람(행동주)
- 격구조 = 격틀<sub>1</sub> =  $y$ -가\_ $(x$ -에의해)\_ $z$ -에  
격틀<sub>2</sub> =  $y$ -가\_ $z$ -에
- 특질구조 = 상태변화\_lcp  
형상역 = 담겨\_있다( $e_2, z, y$ )  
작인역 = 담은\_행위( $e_1, x, y, z$ )

- (27) '채워지다'
- 사건구조 =  $E_1 = e_1$ : 과정  
 $E_2 = e_2$ : 상태  
중점 =
- 논항구조 = 논항<sub>1</sub> =  $y$ : 사물(대상)  
논항<sub>2</sub> =  $z$ : 장소(착점)

- 당연논항<sub>3</sub> =  $x$ : 사람(행동주)
- 격구조 = 격틀<sub>1</sub> =  $y$ -가\_ $z$ -에  
격틀<sub>2</sub> =  $z$ -가\_ $y$ -로
- 특질구조 = 상태변화\_lcp  
형상역 = 채워져\_있다( $e_2, y, z$ )  
작인역 = 채우는\_행위( $e_1, x, y, z$ )

'채우다'와 그 수동의 짝인 '채워지다', 그리고 '담다'와 '담기다'의 의미구조는 논항구조에서 차이가 난다. 다른 피동동사와 마찬가지로 능동동사의 첫번째 논항인 논항<sub>1</sub>가 당연논항이 된다. 사건구조와 특질구조는 동일하다.

다음은 이러한 동사와 관련된 자동사 '차다'의 의미구조이다.

- (28) '차다'
- 사건구조 =  $E_1 = e_1$ : 과정  
 $E_2 = e_2$ : 상태  
중점 =  $e_2$
- 논항구조 = 논항<sub>1</sub> =  $y$ : 사물(대상)  
논항<sub>2</sub> =  $z$ : 장소(착점)
- 격구조 = 격틀<sub>1</sub> =  $y$ -가\_ $z$ -에
- 특질구조 = 상태변화\_lcp  
형상역 = 차\_있다( $e_2, y, z$ )  
작인역 = 차는\_행위( $e_1, y, z$ )

자동사는 관련된 사동사와 그 피동동사와는 달리 사건구조에서 중점이 표시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자동사는 어떤 동작의 진행보다는 그 동작이 완료된 결과상태에 중점을 갖는 완료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논항구조는 피동동사와 같아서 두개의 대상과 착점의 논항을 갖는다.

최소교체현상을 보이는 동사들과 관련된 피동동사는 대응하는 능동동사와 동일한 격교체를 허용하며 이러한 격교체는 대상화에 의한 것이다. 또한, 피동동사와 그와 유사한 격교체를 허용하는 자동사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각각의 동사는 서로 다른 의미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그 서로 다른 의미구조는 피동동사와 능동동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동사의 형태론적인 연관성으로 인해 서로 많은 관련성을 갖는다.

#### 4. 결 론

이상으로 피동동사의 의미구조를 격교체와 같은 논항의 실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능동동사와 형태

론적으로 깊은 관련을 보이는 피동동사는 의미구조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연관지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좀더 폭넓은 피동동사의 어휘의미구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2장에서 제시되었던 능동동사와의 대응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자동사화된 피동동사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다른 피동동사와의 형태적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결합하는 논항의 특징에 의해 다른 의미구조를 갖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의어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상태변화동사(change-of-state verb)와 창조동사(creation verb)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둘째, 피동문의 주어와 관련된 대격표지의 논항의 출현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도둑이 경찰에게 팔을 잡혔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팔을'과 같은 논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동동사의 의미구조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 문제는 도둑이라는 명사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발전된 피동동사의 의미구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명사논항의 의미구조와 술어의 의미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제시한 문제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윤신 (1997), 한국어 능격구성(Ergative Construction)의 고찰, 「언어연구」 제 15·16집,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언어연구회.
- [2] 김차균 (1990), 「우리말 시제와 상의 연구」, 서울: 대학사.
- [3] 양정식 (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서울: 박이정 출판사.
- [4] 우인혜 (1997), 「우리말 피동 연구」, 서울: 한국 문화사.
- [5] 유형식 (1996), 「국어 타동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 박이정 출판사.
- [6]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1998), 한국어 술어의 어휘의미에 대한 생성적 연구방법, 「인지과학」 제 9권 제3호, 한국인지과학회.
- [8] 이준규 (1998), 한국어 비대격 동사의 어휘의 미론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석사논문.
- [9] 홍재성 외 (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
- [10] Croft, W. (1994), Voice: Beyond Control and Affectedness, in Fox, B. and P. J. Hopper (eds.) *Voice: Form and Function*,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11] Lee, Chungmin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12] Lee, Chungmin(1993), Frozen Expressions and Semantic Representation, *Language Research* 29-3.
- [13] Lee, Chungmin., Seungho Nam and Beomm-mo Kang (1998), Lexical Semantic Structure for Predicates in Korean, in Boas, J. and P. Buitelaar (eds.) *Proceedings of ESSLLI-98 (Tenth European Summer School in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Workshop: Lexical Semantics in Context- Corpus, Inference and Discourse*, 1-15.
- [14] Lee, Chungmin, Beom-mo Kang, Seungho Nam and Yoon-shin Kim (1999), Semantic Underspecification and Case Alternations with Verbs of Transitive Motion in Korean. (presented in TLS 99 Conference)
- [15]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6]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The MIT Press.